

디지털 독해 高行健『一個人的聖經』

李寅浩*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高行健『一個人的聖經』 디지털 텍스트 校勘 및 善本 개념
 - 2) 『一個人的聖經』 키워드 및 關鍵 章節
 - ① 작품 이해를 위한 키워드-假面現象
 - ② 작품 이해를 위한 關鍵 章節-제26장
 - 3) 작품 이해의 걸림돌-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명
 - ①~⑥ 웹 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 시범
3. 결론

1. 서론

200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중국인 高行健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은 수상작 『靈山』의 자매편 『一個人的聖經』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다음 3가지 작업을 진행하여 차후 연구자들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첫째, 연구의 첫걸음은 텍스트 파악, 高行健과 관련된 웹상의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고 최근 들어 부쩍 사용빈도가 높아진 디지털 텍스트의 校勘과 관련하여 『一個人的聖經』을 실례로 들어 설명한다. 이로써 디지털 텍스트의 善本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연구의 둘째 걸음은 키워드와 關鍵 章節 파악. 『一個人的聖經』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직전이므로 우선 기본 텍스트를 讀解하는데 필히 파악해야 할 키워드와 關鍵 章節을 제시 및 번역한다.

* 漢陽大 中國言語文化學科 副教授

셋째, 연구의 셋째 걸음은 외국의 인명 지명 작품명의 정확한 독해. 『一個人的聖經』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족적은 중국 대륙의 남과 북을 오르내리고 홍콩을 거쳐 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호주까지 넘나들고 있으며 또한 곳곳에서 서양의 시 소설을 비롯하여 재즈 및 고전음악과 미술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물론 작품의 폭과 넓이를 배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소설의 재미 및 지식 습득 두 측면에서도 독자의 감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외국 사물을 의역이나 음역을 통해 원문 인용 없이 한자 그대로 표기해버리는 중국어 및 중국 소설의 특성상 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을 정확하게 독해하는데 애를 먹는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호흡과 리듬을 타는 것일뿐더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점에 관해 본 논문은 웹상의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고 판단하는지 실례를 들어 증명하도록 한다.

2. 본론

1) 高行健 『一個人的聖經』 디지털 텍스트 校勘 및 善本 개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디지털 자료가 연구자들 앞에 놓여있다. 특히 문학을 연구하는 경우 기본적인 텍스트가 필수이며 섬세하게 탐구하려면 할수록 검색 기능이 요구된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전과 현대작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텍스트를 웹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오프라인 상에서도 느긋하게 사용할 수 있다.¹⁾

1) 원문 텍스트를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요구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은 일반적으로 한글 윈도우이므로 다운로드할 파일 이름이 중국어 간체자/번체자인 경우, 혹은 간체자/번체자로 압축된 파일은 여러

위와 같은 현상은 연구자들에게 적어도 다음 2가지 점에서 편익을 제공한다. 2) 첫째, 원문 입력의 수고를 덜어준다. 둘째, 필요한 자구를 순식간에 검색할 수 있다. 상기 2가지 편익은 매우 유혹적이므로 설령 디지털 자료를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연구자일지라도 그 매력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료는 안전한가? 말하자면 인용과 검색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중문 야후!(雅虎)로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나오는 바, 그 중 가장 알찬 사이트는 高行健專輯으로 작가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연표 및 작품 소개가 있으며 무엇보다 相關資料 부분에 각계 각층 인사들의 평론이 있어 참고자료로 요긴하다. 3) 물론 『一個人的聖經』을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한데 이곳 텍스트는 간체자(gb code)이다.

중문 간체자 텍스트와 번체자 텍스트(big5 code) 변환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많으므로 어려운 문제가 없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글 혹은 MS word 로 불러들이는 문제도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생각한다. 4) 문제는 웹상의 텍

스트 확률이 많다. 이때는 가급적 중문 윈도우 환경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압축 해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므로 중국학을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컴퓨터 환경을 중국어/한국어 멀티부팅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한편, 개개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奇奇書屋과 같은 대부분의 사이트, 해당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것도 보통 노고가 아니다. 이럴 때는 오프라인 브라우저(offline browser)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해결한다. Offline browser는 중국어로 離線瀏覽器.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다는 뜻. 현재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Webzip, Webgrab, Blackwid 등등 여럿 있지만, Teleport pro가 무난하다. 왜 Teleport pro인가? 영어권 사이트면 상관없겠지만 중국어권 사이트를 겨냥해서 사용하려면 8bit 언어에 강한 Teleport pro가 적격이다. 기타 다른 것들은 사용해보면 한글 윈도우 기반에서 여러가 많다.

- 2) 물론 아날로그 종이책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도 절감되고 서가의 공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공간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당장 구매하기 힘든 텍스트도 얻을 수 있다는 즐거움은 일단 차치한다.
- 3) http://www.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gao_xingjian.htm
- 4)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홈페이지 메뉴>특집 코너>각종 중국어 작업의 관련 내용을 참고. 한편, 한글 워디안에 이어서 근자에 한글 2002가 출시되었다. 워디안과 한글 2002는 웹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했으므로 웹상의 중국어 간체자/번체자 텍스트를 볼록으로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이점이 매우 편리하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기존의 한글97 이하 사용자들은 복잡한 코드 변환과정을 거칠 필요없다. 워디안과 한글 2002에서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 문서를 편집한 다음, 한글97 파일 포맷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Alt + v)하고 나서, 새로 저장된 파일을 한글97 이하에서 불러보면 된다.

트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릇 校勘學이라면 古書의 자구나 板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도 이제는 그런 작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오히려 과거보다도 校勘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료의 형성 과정 때문이다. 웹상에 디지털 텍스트 자료가 뜨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3가지 수단을 거치는 것이 상례이다. 첫째, 手工 입력. 둘째, 스캐너를 사용한 OCR 입력. 셋째, 스캔한 이미지 문서 업로드.⁵⁾

위 3가지 입력방법에서 예러 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이 세 번째이지만 이미지 파일이므로 열람만 가능할 뿐 자구 검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연구 논문에도 인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캔한 이미지 텍스트 자료는 열외로 한다. 手工 입력은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시간과 정력을 과다하게 투자해야 하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 즉 스캐

5)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인터넷 상으로 올릴 경우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명칭 소설을 웹상에 게시한다고 했을 때 일일이 타이핑 하려한다면 그에 걸리는 시간적 소모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캐너(Scanner)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문자 인식 프로그램(OCR)을 가동하여 그 이미지에 찍혀 나온 그림같은 문자를 읽어내는 것이다. 읽어낸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는데 인식률이 좋은 OCR인 경우 판독이상으로 인해 생긴 誤字를 약간만 수정하면 되므로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 책 한 권 분량을 WWW상에 올리는 것은 손수 타이핑을 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OCR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이어서 판독이상으로 인한 誤字를 잡아내는 등 잔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웬만한 인내력이 없는 한 그 많은 서적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는 없다. 게다가 古典文學에 적잖은 奇字나 僻字는 아직까지는 WWW상에서 구원이 안 된다. 그러므로 WWW상의 최대 저장량을 자랑하는 新語絲나 太陽城中文圖書館의 경우도 《詩經》이나 《離騷》 원문 텍스트를 보면 山+榮과 같은 식으로 嶠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것이 스캔한 이미지 문서를 한컷 한컷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저 스캐너를 통해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편한 점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이미지 파일이라도 어떠한 奇字나 僻字도 WWW상에서 깨질 염려가 없다. 이런 점을 심분 활용한 사이트가 바로 瑞得超星在線圖書館. 이곳 사이트에 등재된 online library(在線圖書館)의 이미지 파일 자료를 열람하려면 ssreader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瑞得超星在線圖書館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setup.exe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웹브라우저와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을 합친 듯한 (瑞得超星/ssreader)란 아이콘이 생성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ssreader를 실행시킬 수 있다.

너를 사용한 OCR 입력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도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향후 상당 기간 오독률 0%를 장담하는 OCR 프로그램이 나오기 힘든 관계로 오독된 텍스트가 웹상에 업로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게다가 무료로 텍스트 자료를 올리는 인사들이 校閱까지 책임지는 예는 드물기도 하거니와 인쇄된 텍스트를 스캔하는 경우 그 양이 많을 때는 인간의 집중능력 한계상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낙장없이 작업하는 일이 또한 보통 노고가 아니다. 따라서 책 한권을 대상으로 OCR 작업을 하는 경우 중간 페이지가 누락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OCR 프로그램의 오독률과 낙장 가능성, 이 2가지 위험성으로 인해 디지털 텍스트 자료가 매우 유용하기는 하나 실제로 열람하거나 인용할 때는 판별 능력이 요구된다. 古書를 판별하거나 校閱할 때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一個人的聖經』을 대상으로 논하면 다음 몇 가지 주의점이 필요하며 이점은 기타 다른 디지털 텍스트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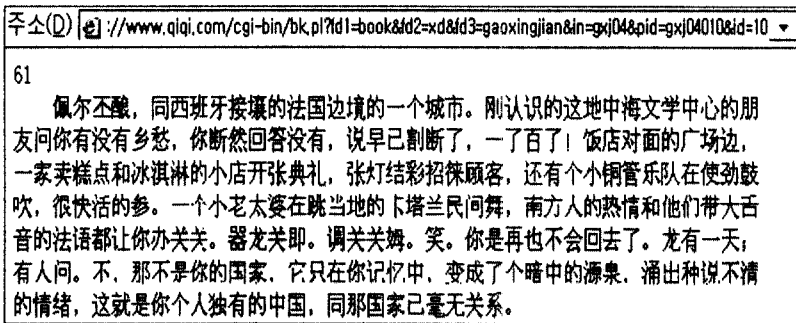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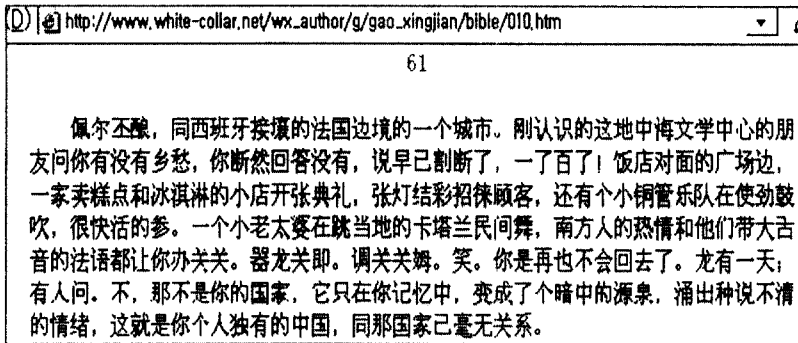
첫째, 디지털 텍스트를 읽거나 인용할 때 字句 사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원문을 확인한다. 감별 능력은 컴퓨터 실력이 아니라 오프라인 아날로그 실력이다. 웹상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텍스트 『一個人的聖經』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⁶⁾

佩爾丕釀，同西班牙接壤的法國邊境的一个城市。剛認識的這地中海文學中心的朋友問你有沒有鄉愁，你斷然回答沒有。說早已割斷了，一了百了！飯店對面的廣場邊，一家賣糕点和冰淇淋的小店開張典禮，張灯結彩招徠顧客。還有個小銅

6) 물론 아날로그 종이책에 誤植이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中國古典도 현대 활자로 인쇄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현대 중문소설 같은 경우도 簡體字 버전과 繁體字 버전이 있으므로 상호 비교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가령 『一個人的聖經』의 간체자 버전 제3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他無法對來求救的這女孩解釋甚麼叫生活，更別說何謂文學，恰如他無法向領導他的作家協會的書記解釋他之所謂文學，無需由誰指導乃至批准，因此，他才纔顛倒櫃。”(19쪽, 홍콩 天地出版公司) 여기서 마지막 구절 “纔顛倒櫃”는 “屢屢”의 誤植이다. 臺灣 聯經出版公司的 번체자 버전은 屢屢로 맞게 인쇄되었다.

管樂隊在使勁鼓吹，很快活的參。一个小老太婆在跳当地的卡塔蘭民間舞，南方人的熱情和他們帶大舌音的法語都讓你辦關關。器龍關即。調關關姆。笑。你是再也不會回去了。龍有一天：有人問。不，那不是你的國家，它只在你記憶中，變成了个暗中的源泉，涌出种說不清的情緒，這就是你個人獨有的中國，同那國家已毫無關係。(제61장)

아래는 해당 사이트 URL을 함께 캡처한 이미지 파일로서 웹상의 통행본이다. 이하 동문.



“佩爾丕釀，同西班牙接壤的法國邊境的一个城市。剛認識的這地中海文學中心的朋友問你有沒有鄉愁，你斷然回答沒有，說早已割斷了，一了百了！飯店對面的廣場邊，一家賣糕点和冰淇淋的小店開張典禮，張灯結彩招徠顧客，還有個小銅管樂隊在使勁鼓吹。”여기까지는 高行健 특유의 만연체 문장이지만 별로 이상

한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상해진다.

很快活的參.

이 구절은 도대체 해석이 안된다. 원문을 확인해보면 “很快活的參”의 參은 音樂의 오탈자이다. 그 다음 구절은 이러한데, “一个小老太婆在跳当地的卡塔蘭民間舞, 南方人的熱情和他們帶大舌音的法語都讓你辦關關. 器龍關關. 調關關姆. 笑.” 역시 뒷 구절로 가게 되면 이상해진다. 원문을 확인해보면 “讓你辦關關. 器龍關關. 調關關姆. 笑.” 이 구절은 “讓你覺得親切”로 되어야 옳다.

또한 “器龍關關. 調關關姆. 笑.”은 해석이 안되는 것은 차지하고 실제 원문을 확인해보면 한단락이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런 누락은 둘째 주의사항으로 언급할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의 낙장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OCR 에러거나 신중한 校閱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락된 원문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這初⁷⁾夏帶上節日氣氛的夜晚, 加上銅管樂的歡樂, 也在慶賀你的新生? 你終於贏得了生之喜悅. 餐館的老板也拿本書來請你簽名, 說是他老婆愛讀小說, 想到中國去旅行, 你笑了笑.

이어서 디지털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你是再也不會回去了. 龍有一天; 有人問, 不, 那不是你的國家, 它只在你記憶中, 變成了个暗中的源泉, 涌出种說不清的情緒, 這就是你個人獨有的中國, 同那國家已毫無關係.”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둘째 구절이 이상하다. 원문을 확인해보면 역시 “龍有一天:”은 “那怕有一天”이어야 옳다.

이처럼 디지털 텍스트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이용할 수 있으나 문맥이 이상한 곳에서는 십중팔구 OCR 誤讀이나 치밀하지 않은 校閱로 인해 에러가 있다. 그러므로 열람과 인용에 있어서 신중하지

7) 홍콩 天地出版社 간체자 버전은 初를 切로 오식했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텍스트를 읽거나 인용할 때 文脈이 이상할 경우 落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에서 언급한 誤脫字는 오히려 찾기 쉽다고 봐야한다. 읽어내려 가다가 해석이 안될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落張의 경우에는 문맥 연결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경우 무심코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섬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디지털 텍스트 『一個人的聖經』의 제16장에는 상당히 심각한 落張이 있다. 문맥 연결이 어색하지도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

제16장은 주인공 “그대”(你)가 여자 친구 마가리트(馬格麗特)를 공항까지 송별하고 나서 다시 홍콩 시가지로 들어와 中環에서 내린다. 몽롱한 정신으로 시내를 걸으며 전날 밤 마가리트와의 추억 속에 빠진다. 추억과 연관된 상념이 나래를 피면서 이윽고 현실로 돌아오자 눈앞에는 中國銀行의 거대한 유리창이 보이고 이어서 立法局 옆의 花園廣場으로 접어든다. 花園廣場 주위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아래 보이는 이미지 캡처 파일은 바로 그 대목이다.

立法局边上，立著女皇铜像的花园广场人头一动，喷水池边廊里人行道上，一圈圈一簇簇连马路当中都挤满人。你以为遇上了甚麽集会或示威，可人们有说有笑，地上到处摊开食物，还有手提录音机，放的是流行音乐，就差跳舞了。

你下到街上，路边有家电影院，看都没看放的甚麽影片买张票便进去了。你需要在黑暗中独处，沉缅在对她的思念中。一部无聊的港式闹剧，合上眼，听不大懂的粤语让你正好打盹。靠椅宽敞舒适，两腿伸展。你庆幸居然赢得了表述的自由，再也无所顾忌，讲你自己要说的话，写你要写的东西。也许，如她所说，得把这些都写出来，对你自己作一番回顾。你应该以一双超然的目光俯视你自己，一个人，或是一只有意识的动物，一头困兽在人世丛林。

문맥의 흐름상 이상한 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윗 단락과 아랫 단락 사이에는 거의 2페이지 가량의 분량이 누락되었다. 특히 누락된 부분에는 『一個人的聖經』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으므로 디지털 텍스트 자료를 아무 생각없이 읽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락된 2페이지 분량은 홍콩 天地出版社 간체자 버전의 139~141쪽에 해당하며, 대만 聯經出版公司 번체자 버전 142~144쪽이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그 부분을 번역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펼쳐지고 있던 야외 회식은 거리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대는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고급 상품을 판매하는 프린스 빌딩의 닫혀진 대문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거대한 족자가 걸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모습이었다. 마침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다. 신도들은 참회를 해도 이렇게 대로상에서 하는 것이었다. 모인 사람들의 80~90%가 여자들인데 모두 까무잡잡한 피부색이었다. 그제서야 그대는 홍콩 부호의 저택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필리핀 여인들이 일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예배를 올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여자들은 홍콩에서 돈을 벌여 고향으로 송금하여 가족들을 먹여살리고 있었다. 저쪽에서 어찌고 저찌고 떠들더니 불시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대는 그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고충도 감지할 수 없었다.

이런 사회 경관은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중국 대륙의 새로운 이민 행렬로 대체될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을 추방하고 있는 추세에 과연 이 지역은 예외일 수 있을까? 그대는 물론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아래 저 빌딩들이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홍콩이란 섬마을이 사막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길을 돌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이 순간 그대는 의외로 고독감을 깊이 느꼈다. 이러한 고독감이 그대를 항상 구원해주었는데 하지만 그대는 여타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희생해가며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필요는 없었고 또한 부활할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대는 다시금 그녀의 목소리가 손짓하는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며, 대낮인데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한 발은 가볍게 또 한 발은 무겁게 내딛으며 왠 자지겔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비틀비틀 지나갔다. 새로운 기억과 오래된 기억이 머리 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엉키고 있었다.

그대는 말한다. 마가리트. 마음 속으로 그녀에게 이야기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동화(童話)야. 이제 그대는 더 이상 회개하거나 죄과를 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청정무구한 군자의 나라며 새로운 사회란 그저 엄청난 사기극일 따름이야. 흐리멍텅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하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존재 의식과 근거를 흔들어 놓을 뿐이라고.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가리트, 그녀 역시 자신을 속죄할 필요가 없어. 참회할 필요도 없구. 새롭게 다시 살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녀는 그녀일 따름이야. 그건 마치 그대는 그대일 따름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그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천당은 여인의 구멍에 있으리라. 그 구멍이 어머니의 구멍이든 창녀의 구멍이든. 그대는 차라리 암울하고 혼돈스런 구멍에 타락할지언정 더 이상 군자인 체 하지도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거나 성스러운 신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육교에 올라섰다. 차량들이 다리 아래로 쏟아져 지나간다. 빌딩과 백화점을 있는 이곳 육교는 평소에 사람들로 붐볐건만 일요일인지 행인도 드물었다. 그대는 난간에 기대 서서 대로를 내려다 보았다. 너무도 피곤했다. 그대의 연극은 마지막 2회가 남았다. 낮 공연은 오후 2시, 아직 1시간이 남았고 저녁 공연은 7시였다.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텐데 틀림없이 늦게까지 퍼마실 것이다. 그대는 새우잠이라도 좀 자놔야 했다. 그러나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대의 느낌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별 전의 그 광란.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의 살내음. 그대의 정액은 탕 탕하고도 출렁거리는 그녀의 가슴을 범벅으로 만들어 놓았지.

위 누락된 부분에서 다음 2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돌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이 순간 그대는 의외로 고독감을 깊이 느꼈다. 이러한 고독감이 그대를 항상 구원해주었는데 하지만 그대는 여하튼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회생해가며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필요는 없었고 또한 부활할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여자가 그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천당은 여인의 구멍에 있으리라. 그 구멍이 어머니의 구멍이든 창녀의 구멍이든. 그대는 차라리 암울하고 혼돈스런 구멍에 타락할지언정 더 이상 군자인 체 하지도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거나 성스러운 신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一個人的聖經』은 무슨 뜻인가? 직역한다면 『한 사람의 성경』이다. 그러나 작품을 통독하고 나서 다시 제목을 생각하면 『나 혼자만의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왜 그럴까? 위 누락된 구절을 놓쳐서는 만족스럽

게 파악하기 힘들다.8)

이상을 종합하자면, 디지털 텍스트 자료는 구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만큼이나 열람 및 인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아날로그 텍스트 자료를 접할 때 과거 학자들이 校勘에 신경썼던 것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텍스트 자료에서도 善本の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무한 복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웹상에서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미 惡貨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텍스트의 세계에서도 校勘과 善本の 개념은 살아있다.

2) 『一個人的聖經』 키워드 및 關鍵 章節

디지털 텍스트를 校勘하며 善本の 개념을 가졌다면 이제는 둘째 단계로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와 關鍵 章節을 파악하도록 한다.

- 8) 물론 누락된 구절만으로는 『一個人的聖經』의 명확한 함의를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제17장, 제53장의 해당 구절을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은 해당 章節과 해당 句節이다. 제17장: “그대는 고통으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한다. 심경을 평화롭게 하여 어둡게 변해버린 기억을 굽어보며 지나는 길을 세심히 검토하기 위해 언뜻언뜻 빛나는 발광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들은 아직 젊다. 그대가 겪었던 일이 그들에게 재현되지는 않을까? 이거야 그들의 문제이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운명이 있을 테니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십자가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는 구세주가 아닌지라 그저 그대 자신만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제24장: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쓴다. 도망자의 책을 말이다. 그대 혼자만의 성경. 그대는 그대 자신의 하나님이자 신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공평한 일이다. 행복은 사람들마다 모두 원하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을……. 이 세상에 행복이란 것이 본래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구려.” 그리고 제53장: “이제 그대는 한가로운 마음으로 쉴래려 간다. 억만 명을 좌지우지했던 황제를 향해 말하고 싶다. 그대는 미미한 존재인지라 그대 마음 속에는 그대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가 단 한 사람 밖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그 황제란 바로 그대 자신입지요. 그대는 이제 이런 말을 마침내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모(毛)씨의 음영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대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 모씨가 통치하던 시절에 살았다. 그런데 그대가 그런 때를 만난 것도 그대의 탓이 아닐지니 이것이 이른바 운명이런가.” 이상을 종합해서 음미해야만 『一個人的聖經』이란 서명이 뜻하는 바를 파악하게 된다.

① 작품 이해를 위한 키워드-假面現象

작품의 전체적 구성은 현재 시점의 '그대'가 과거 시점의 '그'를 회고하면서 교대로 진행된다. 잔혹했던 과거를 냉혹하다 싶을 만큼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필조는 '假面'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그 강도를 높이는데 이점에 관해서는 작품의 제6장 제7장 제17장 제26장 및 제53장 등을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작가의 假面 이야기는 춘추전국시대 도가 철학자 장자(莊子)가 설파한 "하늘의 소인은 지상의 군자요, 지상의 군자는 하늘의 소인이다"⁹⁾라는 대목을 현대적으로 풀이한 듯 무릇 세상에 부대껴본 독자라면 그 울림이 매우 크다. 현실의 실패자든 인생의 성공자든 이와 같은 '가면현상'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¹⁰⁾

② 작품 이해를 위한 관건 章節-제26장

『一個人的聖經』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은 제26장이다. 주인공의 입을 통해 스스로 『一個人的聖經』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관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래는 그 번역문이다.

그대도 이제 그에 대해 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몰락할 운명의 그 집구석. 불효 자식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 대충 무산계급과 자본가의 중간일 것이다. 구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사회에서 성장했으며 그래서 그런지 혁명에 대해 약간 미신이 있었으며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조반(造反)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반은 더 이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염증을 느꼈다. 그런 짓거리는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9) 『莊子/大宗師』..“天之小人, 人之君子; 人之君子, 天之小人.”

10) 가면현상(假面現象 / IP imposter) imposter는 “사기꾼”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뜻한다.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등의 망상으로 괴로와 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판된 같은 이름의 책(폴린 클라인스 지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출세한 사람의 70% 정도가 이와 같은 불안(IP)’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The Imposter Phenomenon : When Success Makes You Feel Like a Fake, Pauline Rose, Dr. Clance)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냥개나 희생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탈출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게 되었고 그 속에서 부대끼며 근근히 목숨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두 얼굴의 인간이 되었다.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을 나서면서 가면을 썼는데, 그것은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았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아무도 엿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가면을 벗으며 홀가분해 했다. 행여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얼굴에 붙어버려 원래의 피부며 신경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벗겨내려면 결코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글썽 한 마디 덧붙인다면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걸.

그의 진실한 모습은 일과 후 가면을 벗은 다음이다. 그러나 가면을 벗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가면이 얼굴에 너무도 오래 붙어있던 탓에 얼굴 피부와 안면 신경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을 써야 겨우 웃는 표정이 되거나 짓궂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는 천성적으로 반골(反骨)이다. 단지 뚜렷한 목표가 없고, 종지(宗旨)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으며 단지 자위(自衛) 본능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반란도 일단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쥐면 만사 끝장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이상(理想)이 없어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생각해 주리라는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다. 고마워 할 일도 없었지만 아무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 그는 또한 공상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에 침을 바르고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일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는 인간 만사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

그는 동지가 필요 없다. 누구와 공모하여 어떤 기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다거나 권력을 쟁취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너무도 피곤하다. 밀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투쟁은 너무도 피곤하고 힘이 든다. 그러서는 그러한 대가족과 그런 대가족으로 구성된 집단을 피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그는 구세계를 작살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반동 간사새끼는 아니다.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알아서 혁명을 하시라. 단지 혁명 혁명하면서 그의 모가지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 아무튼 그는 투사가 될 수 없다. 차라리 혁명과 반동분자의 테두리를 벗어나 송곳 꽃을 정도의 땅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멀찌감치 서서 방관이나 하고 싶다.

그는 사실 적(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은 그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러서는 방법이 없었다. 당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당은 인민을 영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을 과격으로 삼아 한바탕 난리를 치며 선동하지 않으면 일이 안되기 때

문에 그는 줄지에 인민의 공적(公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인민들과 못 지낼 일이 없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기만 바랬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줄곧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다. 지금은 아무튼 동료도 없고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고 영도자도 없고 사장도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영도하고 고용했기에 어떤 일을 해도 달게 받고 기분이 좋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비분강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다. 물론 조국의 중화요리를 특히 좋아하는데 이걸 어릴 적부터 습관된 입맛 때문이며 그의 어머니가 요리 솜씨 또한 좋았기 때문이다. 그도 물론 양식을 먹긴 한다. 프랑스 요리 폴코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태리 스파게티는 마르코 폴로가 당나라에서 수입했다는데 그위에 뿌리는 조미료가 중국에는 없는 치즈 가루인 게 흥미롭다. 일본 사시미와 사부샤브 그리고 코를 짝 찌르는 와사비 맛. 그리고 러시아의 캐비어(caviare). 특히 흑색 캐비어는 너무도 맛나다. 그리고 또 한국의 불고기와 시큼매콤한 김치. 거기다가 인도 빵 '난'(nan)까지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은 다 먹어줘도 맹물 맛인 쉐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못 먹어준다. 그렇다면 입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그건 어린 한때 좋은 시절을 보낸 덕분이다.

그는 또한 여자를 좋아한다. 소년기에 젊고 아름답던 어머니의 나체를 흠쳐 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충심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여자가 없을 때는 글을 쓰면서 해소했는데 상당히 색정적으로 썼다. 여자를 밝힌다는 점에서 그는 전혀 도덕군자가 못된다. 심지어 돈주앙과 카사노바를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염복은 없었다. 그저 섹스의 환상을 글로 쓸 따름이다.

이상이 바로 그대가 그에 대해 평가한 감정서인데, 이것으로 중국에 보관되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로서는 영원히 보지 못할 신상 파일에 대신하고자 한다.(제26장)

3) 작품 이해의 걸림돌-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

『一個人的聖經』에는 다른 소설과는 달리 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명이 다량 등장한다. 외국의 작가 이름은 물론이고 시 소설의 작품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음악을 들으며 작품 구상을 하고 직접 수목화를 창작하는 高行健은 서양의 재즈 및 고전음악과 미술에 이르기까지 복잡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중국어 소설은 이러한 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명을 처리할 때 의역이나 음역을 통해 원문 인용 없이 한자 그대로 표기하므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독해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이점에 관해 본 논문은 웹상의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고 판단하는지 실례를 들어 증명하도록 한다.

제15장에 다음과 같이 외국 작가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他講到格拉特柯夫和愛倫堡的小說，馬雅科夫斯基和布萊希特的戲劇。他那時還不知道斯大林肅反和愛倫堡的一解凍，而梅耶霍特早就給槍斃掉了。

외국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면 대략 음역된 대로 읽어내려가면서 감을 잡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梅耶霍特”는 과연 누구일까? 지금부터 웹을 검색하여 신원 증명의 과정을 제시한다.

① 중문 간체자 야후(cn.yahoo.com)로 접속한다.

검색창에 중국어 간체자로 梅耶霍特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 보드시피 高行健의 원문 밖에 검출되지 않는다.¹¹⁾

檢索結果：找到 2個網頁與 梅耶霍特 相符合
 相關網頁 (本頁顯示1-2個，共找到約2個)

○ 一個人的聖經

…那幫子超現實主義詩人和畫家聚會的酒吧，也講到梅耶霍特因為搞形式主義給槍斃了。大頭的話更驚人…

<http://hk.in-joy.com/hongkuan/lingshan/bible/004.htm>

○ 一個人的聖經

…馬雅科夫斯基和布萊希特的戲劇。他那時還不知道斯大林肅反和愛倫堡的一解

11) 웹상에서 중국어 간체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IME이다. 물론 남극성(NJWIN)을 사용하여 입력한 다음 save as gb code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무방하다.

凍>, 而梅耶霍特早就給槍斃掉了…

<http://www.shuku.net/novels/oversea/ygrdsj/ygrdsj03.html>

『一個人的聖經』 원문만 검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다른 단서로 접근. 까오싱젠 원문의 다음 구절에 주목.

梅耶霍特因爲搞形式主義給槍斃了

“蘇聯的形式主義”로 다시 검색.

③ 검색 결과 다음 사이트를 찾음..

○ 俄羅斯之窗－戲劇

…霍惠的藝術體系很長時期被蘇聯作爲形式主義豫以取締，沒能得到發展。五十年代中期恢复了他的名譽，他的戲劇主張也…

○ 俄羅斯及蘇聯戲劇 (<http://mihair.home.chinaren.com>)

……與斯坦尼斯拉夫斯基體系相對立的是表現派的戲劇藝術理論，首倡者是弗·艾·梅耶霍惠（1874—1940）。他提出有機造型術，認爲藝術全生活有別，主張廣泛地採用戲劇假定性和電影化手法。梅耶霍惠的藝術體系很長時期被蘇聯作爲形式主義豫以取締，沒能得到發展。五十年代中期恢复了他的名譽，他的戲劇主張也吸引了蘇聯國內外戲劇工作者的廣泛註意。他的后繼者的活動自六十年代后逐漸活躍起來。這一流派的當代代表是莫斯科塔幹卡劇團總導演留比莫夫。

④ 외국인 인명의 중국어 음역에 대해 고려

梅耶霍惠와 梅耶霍特는 호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梅耶霍惠로 다시 검색.

○ 第四章 斯大林與間諜恐怖症

1935季，斯大林又對現實的和潛在的反對派展開了新一輪的、更密集的進攻。從1933季開始并持續到1934季末的黨內清洗、主要是爲了根除腐敗和懶散。到了1935季，清洗便呈擴大趨勢，并開始蒙上了一層政治色綵。斯大林宣稱：“對基洛夫全誌惡毒的闖殺，”讓“黨內許多可疑分子現了原形。”隻有精良的鎮壓機器纔能將他們清除，因爲據一名黨內活動家稱，“騙局、政治詭計和兩麵三刀是

黨의敵人的基本戰術。”地方的所有黨組織中都展開了自我批評和坦白交待的運動。用葉甫根尼·金茲堡的話來講，“擠滿人的大禮堂成了懺悔室。”每一次這樣的集會都有自己的一套內容。人們懺悔說，他們對持續革命理解不正確，還說1932季對反對派行動綱領一事投票時投了棄權票。他們承認“表現齣”大國沙文主義和對‘二五’計劃的意義認識不夠。他們表示後悔與‘罪孽的家伙’們保持了聯系，并對‘梅耶霍惠劇院’（1920—1938季由梅耶霍惠領導的一個莫斯科劇院，經常上演宣傳鼓動的、政論性強烈的戲劇——譯者註）盲目迷戀。

<http://www.shuku.net/novels/history/kekebo/kekebo04.html>

⑤ 경력 사항을 비교한다

여기 등장하는 梅耶霍惠는 그가 활동했던 내력이나 경력이 梅耶霍特와 비슷하다. 梅耶는 meye...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감 잡고, 아울러 위 인물이 소련 20세기 초엽의 영화 연극과 관련있는 인물였음을 위에 검색된 내용으로 확인한 다음, “엠펙스>고급검색”으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소련 희극”으로 입력하고 옵션 메뉴에서 “인접해서 검색”을 선택한다. 그리고 엔터!

○ 러시아 혁명 이후의 새로운 연극환경 (정확도 : 68 %) [미리보기]

소련 연극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의 기간은 흔히 러시아 연극의 황금기라고 말해진다. 이 기간동안에 모스크바예술극장 (the Moscow Art Theater)과 스타니슬라프스키 (Stanislavsky)의 연기시스템(System)이 구라파 및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메이어홀드 (Meyerhold), 타이로프(Tairov)

<http://www.uos.ac.kr/~ykryu/text/dragon/russiad.htm>

○ 메이어홀드 (Meyerhold /1874—1940)

러시아·소비에트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의 기간은 흔히 러시아 연극의 황금기라고 말해진다. 이 기간 동안에 모스크바예술극장 (the Moscow Art Theater)과 스타니슬라프스키 (Stanislavsky)의 연기시스템(System)이 구라파 및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메이어홀드 (Meyerhold), 타이로프(Tairov), 그리고 박탄고프 (Vakhangov) 등의 연출가들이 구사한 전위적 연출기법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안톤 체홉(Anton Chekhov)의 작품 <갈매기>(The Seagull)가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초연이 된 이후 작가 체홉, 연출가 스타니슬라프스키, 그리고 모스크바예술극장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때였다.

<http://www.uos.ac.kr/~ykryu/text/dragon/russiad.htm>

⑥ 梅耶霍惠가 바로 梅耶霍特임을 확인

이상 6개 과정을 통해 梅耶霍特는 메이어홀드(Meyerhold)임을 확정한다. 『一個人的聖經』에 등장하는 외국의 인명 지명 및 작품명을 비롯하여 예술 음악 등등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단지 梅耶霍特는 외국 인명의 音譯에서 特과 德이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추론하는 과정이 다소 번잡했을 따름이다.

3. 결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도 디지털 텍스트 자료를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다. 특히 웹상의 디지털 텍스트 자료는 사용 여하에 따라 본인의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텍스트 자료도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고 또한 대부분 OCR 작업을 거쳐 웹상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古書를 다룰 때 등장하는 校勘과 善本の 개념을 제기할 시점이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수단이든 연구의 기본은 변함이 없음을 이런 점에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한편, 중국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작가들 대부분은 외국의 인명 지명 사물 및 작품명 등을 원문 인용없이 意譯 혹은 音譯으로 처리해 버린다. 외국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서적을 모두 구비한다 해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보화 시대에는 웹 검색을 통해 이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점은 아날로그식보다는 디지털식이 훨씬 편리하다.

요컨대, 아날로그 식으로 연구하던 디지털 식으로 연구하던 결과물이 훌륭하다면 우열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효과와 정확도 측면에서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절충하는 혜안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에 있어서 디지털 자료의 활용은 시대적 대세이므로 관련 연구자들은 옥석을 구별하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박력이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1. 高行健, 『一個人的聖經』 (홍콩, 天地圖書公司, 2000년 簡體字 버전)
2. 高行健, 『一個人的聖經』 (대만, 聯經出版公司, 2000년 繁體字 버전)
3. 奇奇書屋 「現代文學」 高行健 (<http://www.qiqi.com>) 簡體字 버전¹²⁾
4. 高行健專輯¹³⁾

【中文摘要】

網路上的中國文學資料異常豐富, 而原文最多, 圖片和聲音資料次之. 原文資料大都可以在線上閱覽, 甚至下載到個人電腦來任意使用. 得書之快且便, 這在過去是想不到的. 旅法華裔作家高行健榮獲2000年諾貝爾文學獎, 他的作品也不例外, 變成數碼文本, 網絡上廣為流轉. 拙文針對高行健『一個人的聖經』的數碼文本, 首先探討網上資料的可靠性問題, 借以提出數碼文本的善本概念. 繼此, 摘出該作品的核心語及關鍵章節, 供給研究人員進一步探究. 最後, 『一個人的聖經』所見外國的人名・地名及作品之類, 繁複多雜, 難以究竟, 不僅一般中文讀者不容易讀下去, 研究人員也難免費神. 拙文試以“梅耶霍特”為例, 通過網絡資源, 展示出一系列檢索過程.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除了練好有關電腦程序和操作技巧之外, 把握檢索要領, 應該是對教研兩方面都有裨益的. 網絡的優勢在教研領域發揮得淋漓盡致, 新的教研手段的引進勢在必行. 拙文意圖, 亦在此耳.

[關鍵詞: Digital Text, Web, Gaoxingjian, My Only Bible]

12) <http://www.qiqi.com/cgi-bin/bk2.pl?fd1=book&fd2=xd&fd3=gaoxingjian&in=gaoxingjian>

13) http://www.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gao_xingjian.htm